5강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②

(1교시)

◆ 칸트의 정언명령

※ 학습목표
칸트의 윤리적인 입장을 통해 의무론적 윤리와 행복에 대해 생각해본다.

▲ 칸트의 정언 명령
「칸트가 말하는 의무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의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칸트가 말한 도덕적 의무이다.」

칸트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기준 혹은 원칙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정언 명령이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황금률에 해당하는 원칙이다. 신약성서에도 나오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는 원칙은 의무이며, 이것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말한다.
칸트의 윤리적 입장은 의무사이의 충돌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힘든 난점이 있다. 이를테면 강간으로 인한 낙태, 정당방위 등이 그 예다.

www.artnstudy.com

(2교시)

◆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 학습목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의 충돌 지점에 대해 알아본다.

▲ 거짓말에 대한 칸트의 입장
칸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예외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유대인을 숨겨 두고 있은 집주인에게 나치가 물었을 때, 솔직하게 말할 경우 유대인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흔히 생각한다. 칸트는 이는 잘못이라고 말한다. 우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유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나치는 들어와서 살해 할 수도 있다. 또 있다고 해도 나치가 곧바로 살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친구 살해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는 우연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쪽에서 거짓말을 했었어야 했다고 주장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누구나 다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지만, 진실을 말해서 발생한 우연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고 칸트는 말한다.

* 見利思義: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전체의 이익)를 먼저 생각함

▲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그것이 쾌락주의에 입각한 것이든, 이상적인 "행복"에 입각한 것이든 간에, 개개인의 구체적인 차이를 무시한 채 어느 만큼 보편적인 쾌락을 산출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의무론적 윤리 또한 누구나 다 인정해야 하는 보편적인 원칙을 주장하지만, 그 원칙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며, 누가 만드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www.artnstudy.com